
해외 출장 결과 보고

캄보디아 캐슈넛 성과관리 사업 기초선 조사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2026. 9.

거시농정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① 출장 개요

1. 출장명: 캄보디아 캐슈넛 성과관리 사업 기초선 조사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2.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 우리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의 성과평가 특화 지원 기관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초선 조사 수행을 위해 현지 사업 진행 파악 및 성과지표 측정 가능성을 목적으로 현지 조사를 추진함.
- 이를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 핵심 이해관계자 면담, 정성 및 정량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초선 조사 설계를 하고자 함.
- 본 출장을 통해 성과관리를 수행할 대상 사업은 “캄보디아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지원 사업(2026-2029)” 임. 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캄보디아 캄퐁 톱 주 내에 캐슈넛 가공단지 구축과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해 캐슈넛(가공제품)의 수출 확대와 영세 소농의 소득 증대와 취업 기회 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을 목표로 함.
- 주요 활동으로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 △가공설비·기자재 지원, △가공공장 운영체계 구축, △초청연수, △현지 농민 교육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됨.

□ 출장 목적

- 캄보디아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선 조사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 (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 점검) 사업 대상지와 가공단지 예정부지,

농업협동조합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여건과 잠재적 애로사항을 점검

-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 농업농촌개발위원회(CARD), 캄보디아 캐슈넛협회(CAC), 농업협동조합 및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와 수혜자 선정 현황을 확인하고, 성과목표의 현실성,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
- (성과측정 기반 마련) 기초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정량·정성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과 자료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현지 조사기관과 조사 범위 및 수행방안을 협의하여 기초선조사 설계와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

3. 출 장 자: 이윤정 부연구위원, 류민 위촉연구원

4. 출 장 지: 캄보디아

5. 출장기간:

- 이윤정: 2026.8.4.(화)~2026.8.9.(일)(총 5박 6일)
- 류 민: 2026.8.4.(화)~2026.8.8.(토)(총 3박 5일)

② 일정 및 수행 업무

□ 일정

No	일 자	방문 기관	수행 업무	출장자
1	08.04 (화)	인천→프놈펜	인천 (18:50) →프놈펜 (22:15)	- 이윤정 - 류민
2	08.05 (수)	○KRC 캄보디아 ODA 사무소 (안성수 소장) ○농업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프놈펜 → 캄퐁툼 주 이동	-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파악 - PMC 주요 과업 내용 및 추후 업무 추진 계획 파악 - KREI 및 성과관리(모니터링) 사업 및 조사 목적 소개 - 사업 추진 현황(사업 대상지, 잠재적 수혜자 현황 등) 및 변경 가능성 논의 - 약 3시간 소요	- 이윤정 - 류민
3	08.06 (목)	○캄퐁툼 살라 비사이(Kampong Thom Sala Visai) 농민조합 ○프라삿 삼보 룡 레앙(Prasat Sambo Rung Roeang) 농민조합 ○툼 레앙(Tom Reang) 농민조합 ○캄보디아 캐슈넛협회(CAC) ○사업 부지 및 부지변경 대상지 방문	- 협동조합 운영 및 캐슈넛 생산 현황 - 수확후관리 및 생캐슈넛(Raw Cashew Nut) 판매·유통 현황 - 기초선조사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확보 현황 - 협동조합 운영 및 캐슈넛 생산 현황 - 수확후관리 및 생캐슈넛(Raw Cashew Nut) 판매·유통 현황 파악 - 협동조합 운영상 애로사항 및 지속가능성 - 캄보디아 캐슈넛 산업 및 수출시장 현황 - 사업 추진 준비 현황 및 가공시설 운영체계 - 농업협동조합 및 농가 역량강화 수요 - 시장 접근성, 가치사슬(Value Chain) 발전 및 지속가능성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위험요인 - 사업 부지 방문 및 부지변경 후보 대상지 방문	- 이윤정 - 류민
4	08.07 (금)	○캄퐁툼 주 → 프놈펜 이동 ○농업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프놈펜 →인천(ICN)	- 약 3시간 소요 - 조사 내용 결과 공유 및 사업요소 변경 가능성 논의 - 사업 주요 성과지표 및 데이터 수집 방안 논의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고려사항 파악 - 류민 : 프놈펜 23:25 → 인천 06:50+1일	- 이윤정 - 류민 - 류민
5	08.08 (토)	○캄보디아 캐슈넛 시장가격 조사 및 성과관리 설문지 초안 작성	- 캄보디아 캐슈넛 사업 시장가격 조사 - 현지조사 내용 정리 및 성과관리 설문지 초안 작성	이윤정
6	08.09 (일)	○프놈펜 →베트남	이윤정: 프놈펜(16:30) → 베트남(18:35)	이윤정

□ 수행 업무

출장자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이윤정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 팀장	- 현지 조사 진행 총괄: 사업대상지 및 사업 추진여건 점검, 캐슈넛 생산·가공·유통 현황 및 사업 이해관계자 면담, 성과지표 자료 수집 여건 분석 및 기초선 조사방안 검토
류민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현지 조사 수행 및 지원: 현지 문헌·자료 수집 및 면담내용 기록·정리, 사업대상지 및 농업협동조합 현황 조사, 이해관계기관·면담대상자 섭외 및 현지조사 일정 조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협의

③ 출장 주요 결과

1. KRC 캄보디아 ODA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0:30 - 12:00 / KRC 사무소

□ 참석자

- (KRC) 안성수
- (KREI) 이윤정, 류민

□ 주요 논의 내용: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현재 사업 추진상황
 - 현재 캐슈넛 가공시설 부지는 ① 캐슈넛 산업단지(Cashew Nut Industrial Park, CIP)와 ② MAFF 제공 부지가 검토되고 있음.
 - ① 캐슈넛 산업단지(Cashew Nut Industrial Park, CIP):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후보부지로 검토되었던 곳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캐슈넛 전용 산업단지임. 다만, 현재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여건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 ② MAFF 제공 부지: CIP의 기반시설 조성 등이 지연됨에 따라 CARD에서 대체부지로 MAFF 소유 부지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해당 부지를 기준으로 시설 건립 관련 발주가 진행된 상황임.
 - 8월 말 입찰 마감 후 9월 중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최근 총리실에서 캐슈넛 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CIP로 사업부지를 이전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음.
 - 총리실 Advisor 측은 국가 캐슈넛 산업정책과의 연계 및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여 CIP 입주를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반면 KRC 측은 이미 MAFF 부지를 기준으로 발주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CARD 측은 CIP의 기반시설 미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아직 총리실과의 최종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부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3개 대상 협동조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후보지의 거리가 크지 않아 기초선조사 대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차량 및 기자재 지원계획 조정

- 당초 사업에서는 PMC의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1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CARD 측에서도 현지 사업관리 및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차량 지원을 요청함.
- 이에 기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트럭 3대 지원계획을 조정하여, PMC에 10톤 트럭 1대, CARD에 픽업차량(SUV) 1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는 트럭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대신, 비가림시설 및 건조장 등 캐슈넛의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함.

○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검토

- 본 사업에서는 ODA 사업을 통해 현지 농가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한국 민간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ODA 협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대사관 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도 민간부문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 PMC가 선정·착수되면 캐슈넛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과 면담하여, 협동조합 및 사업대상지역과 어떠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분야를 발굴할 계획임.
- 특히 캐슈넛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슈넛 껍질(Cashew Nut Shell)을 활용한 오일 생산 및 부산물 활용 등에 민간기업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캐슈넛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바이오디젤·엔진오일 등의 원료로 활용하고, 이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오일 추출 이후 남은 부산물 역시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캐슈넛 껍질에서 생산되는 오일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성과지표 및 캐슈넛 수출량 측정 관련

- 기존 성과지표 중 ‘가공 캐슈넛 수출량 증가’ 지표는 실제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캄보디아 전체 캐슈넛 수출량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증가분 가운데 본 사업대상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캐슈넛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움.
 - 특히 현재 확보 가능한 수출통계만으로는 특정 지역 또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기여분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출량 증가’를 본 사업의 성과로 직접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가공된 캐슈넛이 실제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판로·수출 채널까지 확보할 수 있는냐는 별개의 문제
- 향후 PMC 선정 이후 캄보디아 내 캐슈넛 유통·가공·수출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별(지역별) 캐슈넛 생산 및 수출통계 확보 가능성 검토
 - 캐슈넛 생산량의 경우 주(province) 단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량은 주로 국가 단위로 집계되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의 수출성과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Cashew Nut Association of Cambodia(CAC), 농업 관련 부처 및 상무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주별 또는 지역별 캐슈넛 생산·유통·수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 및 CARD측에 문의.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선정기준 : CARD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과정 및 기준은 CARD 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의 협동조합 가입률 : 캄보디아 농가의 협동조합 가입여부는 시장 및 경제적 유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협동조합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경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3개 협동조합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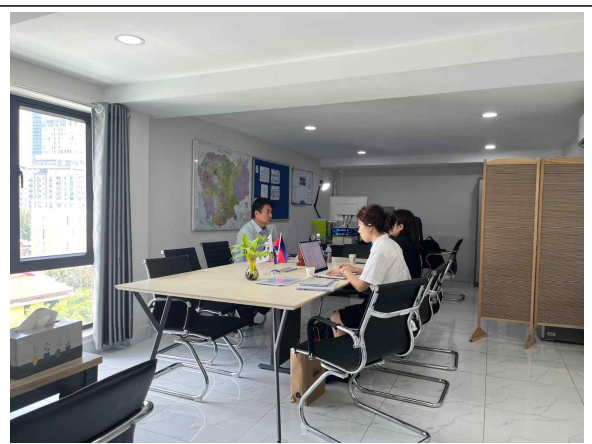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정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의사결정 구조 및 실무 수행체계

- CARD가 상위기관으로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함.
-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는 MAFF, MRD 및 주정부 산하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기관 간 협조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업무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건축허가, 수출 관련 인허가, 농업생산 관련 업무 등은 MAFF 등 관계 기관의 권한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CARD가 사업을 총괄하더라도 현재 인력 및 조직으로 이러한 실무업무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따라서 향후 CARD와 MAFF·MRD 및 주정부 산하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실제 실무 수행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8.5) KRC 캄보디아 ODA 사무소 회의 (1)



(8.5) KRC 캄보디아 ODA 사무소 회의 (2)

2. 농업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ARD)

□ 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4:00 - 16:00 / CARD 사무실

□ 참석자

○ 원외

- (CARD) H.E. Ouk Makara, H.E. Sok Silo, Chesda Chun
- (KRC) 안성수 소장

○ (KREI) 이윤정, 류민

□ 주요 논의 내용:

○ 성과관리 및 본 현지조사 목적

- KREI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캐슈넛 가치사슬 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본 현지조사는 향후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를 설계하기 위해 앞서 사업대상지역의 현황과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향후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기초선조사를 준비하고 있음.
- 이에 기초선조사 설계에 앞서 현재 사업의 범위 및 추진상황, 사업대상지역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 협동조합과 캐슈넛 농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금일 CARD와의 면담 이후 사업대상지역을 방문하여 협동조합 및 농가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요일에 다시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현재 사업 추진상황

- R/D체결 이전인 5월 이전에는 사업대상지역이 MAFF 부지로 이미 선정되어 있었으나, R/D 체결 이후 총리의 캐슈넛 산업단지(Cashew Nut Industrial Park, CIP)조성 구상이 제시됨
- R/D 체결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진전은 크지

않은 상황임.

- CARD측은 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이후 총리 자문팀(Prime Minister's Advisor)의 공식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총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공식 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따라 기존에 합의된 사업대상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CIP로 사업부지를 이전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PMC 및 기타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 준비 절차에도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CARD 측에서는 사업을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나, 총리 측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 추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특히 사업부지 이전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CIP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CIP의 선정기준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상업성을 중시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계획

- 현장조사 이후에는 기존 R/D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CIP 구상과 연계하기 위해 사업 구성요소(component)를 일부 수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측 현장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토대로 금요일 고위급 관계자와 다시 논의
- 또한 총리실의 지침 역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총리 자문팀 관계자를 관련 논의에 참석시켜 한국 측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PMC 선정 및 사업 착수 예상 일정

- 한국 측에서는 현재 PMC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경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순경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
- 이후 협상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빠르면 9월 말~10월 중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당초 계획에 비해 PMC 선정 절차가 약 1개월 정도 지연된 상황
- 향후 PMC가 사업에 착수하면 캐슈넛 가공공장 설계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공장이 들어설 정확한 위치와 부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함.

○ 캐슈넛 산업단지(Cashew Nut Industrial Park, CIP) 조성 현황

- 현재 캐슈넛산업단지는 약 200ha 규모의 1단계 부지 정리*가 완료된 상태임.

*해당 200ha가 CIP 1단계 전체 사업부지에 해당함.

- 총리는 다음 달인 9월 CIP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캐슈넛 산업 발전계획 등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임.
- CIP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selection framework도 마련되어 있으며 총리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함.
- 한편 현재 캐슈넛 가공공장에 대한 신규 허가 절차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음.
- 우선 CIP 건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산업단지 내에 몇 개의 가공공장을 허가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
- 이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가공업체들이 충분한 캐슈넛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CIP 기반시설의 경우 현재 부지 정리가 최근 완료된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추정이나, 올해 말까지 1단계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완공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
- CIP 개발의 보다 구체적인 향후 방향은 9월 예정된 총리의 연설 이후 명확해짐.

○ CIP 입주기준과 본 사업에 적용 여부

- CIP가 기본적으로 상업적·비즈니스 지향적인 산업단지인 반면, 본 사업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ODA 사업임. 따라서 입주 및 지원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논의 필요
- CIP에 입주하는 민간 가공업체의 경우 QIP*와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음.

*품질검사 계획서(Quality Inspection Plan)

- 다만 본 사업은 민간투자가 아닌 ODA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가공업체와 동일한 인센티브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CIP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CIP 입주기준이 본 ODA 사업의 현재 역량(capacity)보다 다소 높은 수준
- 다만 본 사업이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CIP로 이전하기로 결정될 경우 총리에게 본 사업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후보지 비교를 위한 CIP 방문 협조 논의

- 공장 설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업부지의 위치와 규모가 확정될 필요가 있기에, 한국 측이 직접 CIP 현장을 방문하여 공장 위치 및 산업단지 개발 진행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한국 측에서는 기존 사업대상지와 CIP를 직접 방문하여 두 후보지를 비교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이에 CIP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급자와 협의하여 한국 측 현장조사단의 CIP 방문 가능 여부와 동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함.

○ 사업 수혜자 및 대상 협동조합 변경 가능성

- 기존 R/D 및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Kampong Thom 지역의 3개 현대농업협동조합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해당 3개 협동조합은 최근 정부 및 농업부가 공식적으로 설립 · 선정한 현대농업협동조합임.
- 현장조사 이후 대상 협동조합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가능.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 ODA 사업은 민간기업이 아닌 소규모 농가와 농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 방문 목적은 이보단 농가수요 파악이 우선이 될수 있을 듯.

○ 캐슈넛 생산 · 수출 관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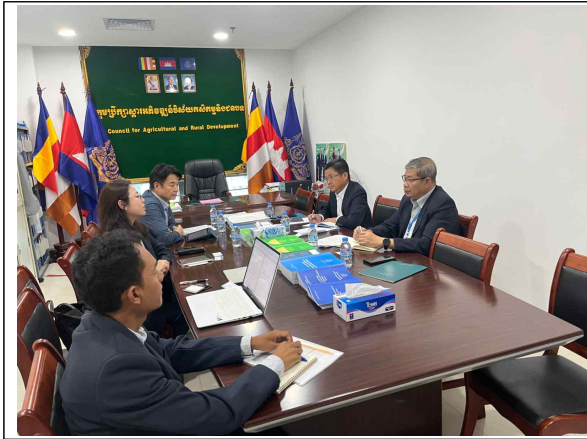
- CARD측에서 캐슈넛 생산량은 주 단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통계는 주로 국가 단위로 제공되고 있음.
- 캐슈넛 수출 관련 최신 자료는 CAC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음.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및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CAC 자료에 비해 업데이트가 다소 늦은 편임.

○ 사업 추진체계 및 CARD · 지방정부의 역할

- 기존 PCP(Project Concept Paper)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체계는 크게 두 단계의 위원회 체계로 구성될 예정임.
 - ① Project Steering Committee: CARD가 의장을 맡고 농업부 및 상무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 · 의사결정 역할을 담당
 - ② Project Technical Committee: 사업계획 및 활동의 검토 · 평가, 기술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 등 기술적 · 실무적 사항을 담당
 - 그러나 현재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세부 역할분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PMC가 선정된 이후 PMC와 협의하여 Project Steering Committee 및 Project Technical Committee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할 계획
- CARD는 사업을 총괄 · 조정하고, 지방단위의 실무적인 사업 수행은 PDAFF(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주 농림수산물국)가 담당할 예정임.
- PDAFF는 농민조직 및 협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생

산 관련 업무, 농민 교육 및 현장 수요에 따른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음. 이에 현지 농가의 수요 파악 및 실제 현장활동 수행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PDAFF의 구체적인 역할은 Project Technical Committee를 중심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Project Technical Committee는 사업 계획 및 활동 검토, 기술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 등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할 예정임.



(8.5) CARD 회의 (1)



(8.5) CARD 회의 (1)

3. 캄퐁툼 살라 비사이(Kampong Thom Sala Visai) 농민조합

□ 일시 및 장소: 2026. 8. 6(목) 10:00 - 12:00 / 캄퐁툼 살라 비사이 조합 창고

□ 참석자

- (원외) Sok Silo, 안성수 소장, 살라 비사이 조합 대표 외 조합원 15명
- (KREI) 이윤정 류민

□ 주요 파악 내용

○ 조합 개요 및 캐슈넛 생산 현황

- Sala Visai 조합은 13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명이 여성임.
- 조합원들이 보유한 캐슈넛 재배면적은 총 225ha이며, 주로 M23 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 조합의 연간 캐슈넛 생산량은 약 300톤* 수준으로 추정됨.
*이는 조합원 재배면적이 225ha이고 ha당 생산량이 1톤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치임.
- 한편, 조합원 농가 이외까지 포함할 경우 Prasat Balang District 내 캐슈넛 재배면적은 약 5,000ha에 달함.

○ 계약 및 수확된 캐슈넛

- 2025년 257톤, 2026년 79톤의 원물 캐슈넛(raw cashew nuts)이, 합을 통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판매됨
 - 다만 이는 실제 전체 생산량이 아니라 조합과 농가 간 계약을 통해 수집되어 업체에 공급된 물량임. 따라서 2026년 수치 감소를 단순히 생산량 감소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당초 조합은 2026년 약 200톤의 계약물량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불리한 기상 및 생산여건으로 실제 계약물량은 79톤에 그침.
- 특히 토양의 수분 상태와 불규칙한 강우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수확시기가 지연되고 캐슈넛 품질도 저하됨.
- 이에 따라 생산된 캐슈넛 중 일부가 구매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약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품질 평가 및 계약기준 준수

- 1) 수분 측정 방법
- 조합에서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음.
- 토양을 파서 직접 만져보거나, 아침에 위에 남아 있는 수분 등을 관찰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를 판단함.
- 2) 원물 캐슈넛의 품질
- 캐슈넛 과육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 맛을 보고, kg당 알맹이(kernel) 수 등을 평가함.
- 규정 준수에는 2가지 요소가 있음.
 - Kernel의 수로 KG당 96 Kernel
 - Flesh content(과육 내용물)의 기준치는 26으로
- 올해는 Flesh content가 22여서 기준점 보다 떨어져 계약 품질기준(compliance)을 충족하지 못함.

○ 수확 및 수확 후 계약재배 및 원물 확보의 어려움

- 조합이 농가와 생산된 캐슈넛을 조합에 판매하기로 계약하더라도, 중간상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농가들이 계약물량을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함.
- 반대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중간상인들의 구매가 감소하면 농가들이 조합에 판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따라 조합은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계약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계약재배 규모를 확대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주요 판매처 및 유통구조

- 해당 지역의 캐슈넛 판매처는 크게 ①베트남, ②현지 중간상인(local traders), ③ 일본계 업체로 구분됨.
- ①베트남 구매자의 경우 약 3개의 주요 거래처(회사명 ‘973’, 군 베이스 거래처, 베트남으로부터 직거래*) 존재

*베트남 직거래 업체 중에는 내년 약 10,000톤 규모의 계약이 계획 중인 것으로 설명됨.

- ②현지 중간상인 역시 약 3개의 주요 거래주체가 존재함.
- ③일본계 업체로는 MIRARTH 업체와 거래하고 있음.

○ 캐슈넛 판매가격 및 가격 결정 방식

- 조합의 판매가격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음.

	시장가격	조합가격
2025년	약 4,300리엘/kg	약 5,491리엘/kg
2026년	약 5,500리엘/kg	약 5,931리엘/kg

- 조합의 가격 결정 시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됨.
 - 주변 시장 및 인근 조합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활용
 - 조합(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가격
 - 조합 내부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협상 결과
- 조합을 통한 판매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통상적으로 약 200리엘/kg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됨.
 - 세척·선별·건조 등 기본적인 수확후처리를 실시할 경우 약 50리엘/kg의 추가가격이 발생함.
 - kernel의 flesh content 등 품질에 따라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적용되며, 기준이 24~25 수준인 경우 약 100리엘/kg, 26 이상인 경우 약 200리엘/kg의 추가가격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수확후처리 및 품질 수준을 종합하면 일반 구매자보다 약 200리엘/kg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됨.

○ ODA 가공공장 운영 이후 원물 공급 및 가격 결정

- 향후 ODA 사업을 통해 신규 가공공장이 운영될 경우, 조합이 기존 베트남 구매자, 현지 중간상인, 일본계 업체 등과 신규 공장 중 어느 곳에 원물을 판매할 것인지
- 조합 측은 원물 공급량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함. 면담에서 언급된 보다 넓은 지역의 캐슈넛 재배면적은 약

14,000ha이며, ha당 최소 1톤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약 14,000톤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신규 공장이 추가되더라도 공급 가능한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임.

- 다만 일반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반 구매자의 가격이 5,500리엘/kg이라면, 신규 공장은 최소 200리엘 높은 5,700리엘/kg 수준을 제시해야 조합과 농가가 공급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설명함.
- 또한 공장이 조합에서 멀리 위치할 경우 운송비가 추가되므로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주요 가공·구매업체

- 기존 주요 가공·구매업체로는 일본계 MIRARTH, 싱가포르계 Olam, 현지업체 Santana가 존재
- 과거에는 세 업체와 모두 거래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일본계 MIRARTH와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됨.
- 이는 MIRARTH이 일반 구매자보다 최소 200리엘/kg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임.
- Olam과도 거래가 가능하나 공장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멀어 운송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됨.



(8.6) 캄퐁툼 살라 비사이 농민조합 면담



(8.6) 캄퐁툼 살라 비사이 농민조합 면담

4. 프라삿 삼보 룡 레앙(Prasat Sambo Rung Roeang), 톰 레앙(Tom Reang) 조합

□ 참석자

- (원외) Sok Silo, 안성수 소장, 프라삿 삼보 조합 대표, 톰 레앙 조합 대표(Chamn Sao) 외 20명
- (KREI) 이윤정, 류민

□ 일시 및 장소: 2026. 8. 6.(목), 13:30 - 15:30 / 프라삿 삼보 조합 창고

□ 주요 파악 내용

- 프라삿 삼보 룡 레앙(Prasat Sambo Rung Roeang) 조합 현황
 - 프라삿 삼보 조합은 현재 23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슈넛 생산면적은 약 650ha임.
 - 조합은 5개 commune을 포괄하고 있으며, 캐슈넛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조합원을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톰 레앙(Tom Reang) 조합 현황
 - 톰 레앙 AC는 현재 8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기준 캐슈넛 생산면적은 약 402ha임.
 - 현재 3개 commune을 포괄하고 있음.
 - 조합의 운영위원회(Committee)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명이 각 운영 부문을 담당하는 책임자(head)로 활동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2명의 직원(staff)이 근무하고 있음.
- 캐슈넛 생산면적 및 생산량
 - (Sambo AC) 2025년 캐슈넛 생산면적은 697ha, 생산량은 약 1,000톤
 - 2026년에는 생산면적이 950ha로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약 1,4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단수는 약 1,800kg/ha수준임.
 - (Tom Reang AC) 2025년 생산면적은 402ha, 생산량은 약 700톤으로 평균 단수는 약 1,800kg/ha수준이었음.

- 2026년에는 생산면적이 500ha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약 1,000톤으로 증가함.

○ 생산면적 확대 추세 및 향후 계획

- (Sambo AC) 생산면적이 2025년*에 비해 약 30~40% 증가
*조합이 약 2년 전에 설립되어 2025~2026년 자료만 보유하고 있음.
- 생산면적은 2025년 697ha에서 2026년 950ha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생산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1,500~2,000ha까지 확대할 계획임.
- (Tom Reang AC) 역시 생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2027년까지 약 800ha, 2028년까지 약 1,125ha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현재보다 2개 commune을 추가하여 총 4개 commune으로 생산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토양 유형에 따른 생산성 차이 및 조합 확대 가능성

- 캐슈넛 생산성은 연도별 차이보다는 토양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큼.
- 농가에 따라 약 1,500kg/ha에서 2,000kg/ha 이상의 생산량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Tom Reang AC의 경우에도 연도별 변동보다는 토양 유형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큰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적색토(red soil)에서는 약 2,500kg/ha, 백색토(white soil)에서는 약 1,800kg/ha 수준의 단수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함.
- 현재 Tom Reang AC 조합원은 해당 지역 전체 캐슈넛 생산농가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조합에 대한 홍보와 신규 조합원 가입 확대를 통해 조합 규모 및 조합을 통한 생산·판매 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캐슈넛 판매 및 Olam과의 계약

- (Sambo AC) 과거 Olam과 캐슈넛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생산된 캐슈넛이 Olam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급하지 못

함.

- Olam은 flesh content가 25 이상인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생산품은 약 22~23 수준이었던 것으로 설명함.
- 이에 따라 Olam에 판매하지 못하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베트남으로 판매하였으며, 베트남 바이어 또는 트레이더가 캐슈넛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짐.
- (Tom Reang AC) 현지 수출업체(local exporter)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가공품이 아닌 원물 캐슈넛(raw cashew nut)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 Olam 및 베트남 판매가격

- Olam과의 계약가격은 사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임.
- 해당 지역에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형 트레이더가 있으며, 이 트레이더가 창고 앞에 게시하는 가격을 지역 내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6,000리엘/kg인 경우 Olam과 베트남 바이어 모두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을 설정함.
- 다만 Olam의 경우 flesh content가 25를 초과하는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시장가격보다 100~150리엘/kg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함. 따라서 기준가격이 6,000리엘/kg이라면 약 6,100~6,150리엘/kg에 판매할 수 있음.

○ Tom Reang AC의 판매 및 품질 확인 방식

- 가격은 비슷한 케이스이지만, Tom Reang 지역의 로컬 트레이더는 Sambo AC의 Olam 계약과 달리 flesh content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음.
- 대신 포대를 무작위로 개봉하여 캐슈넛 품종을 확인하며, 특히 M23과 M09 품종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두 품종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요구하며, 혼합된 상

태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

- 기본적인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따르지만, AC 조합원에게는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0리엘/kg의 추가 프리미엄을 지급함.
- 판매자가 창고에서 자신이 AC 조합원임을 확인받으면 해당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가격에 따른 생캐슈넛 판매 및 건조 여부

- 캐슈넛 판매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1)시장 가격이 좋은 경우, 즉 4,000리엘/kg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건조 없이 생캐슈넛(raw cashew nut) 상태로 판매함.
- 이 경우 지역별 또는 그룹별로 캐슈넛을 한 장소에 모아두면 바이어가 해당 수집지점으로 와서 가져가는 방식임.
- (2)반대로 시장가격이 4,000리엘/kg미만으로 낮은 경우에는 바로 판매하지 않고 건조하여 판매함.

○ 캐슈넛 건조방식 및 품질 관리

- 캐슈넛은 기본적으로 천일건조(sun drying) 방식으로 건조하며, 플라스틱 시트 등에 원물 캐슈넛을 펼쳐놓고 약 5~7일간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약 10% 수준까지 낮춤.
 - 건조 과정에서 수분 감소에 따라 전체 중량이 약 15~20% 감소하며, 초기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 약 20%,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약 15% 정도 중량이 감소됨.
 - 수분함량 약 10%는 장기 저장을 위한 적정 기술적 기준(technical standard)기준으로, 저장 중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일부 농가는 수분측정기(moisture content tester)를 활용하나, 측정장비가 없는 경우 캐슈넛의 소리나 건조일수 등을 기준으로 건조상태를 판단함.
- 다만 건조일수에만 의존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건조되어 중량이 감소하고 농가의 판매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분측정기

를 활용한 정확한 수분함량 관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함.

- 수분함량 약 10% 수준으로 건조된 캐슈넛의 판매가격은 약 7,300~7,500리엘/kg 수준임.

○ 캐슈넛 수집 및 저장 현황

- 기존 창고는 건조된 캐슈넛을 보관·저장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캐슈넛을 별도로 건조하거나 창고에 장기간 저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수확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2개 수집지역이 있는데, 한 수집지점(collection point)에서 다른 수집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20km이며, 각 수집지점에 속한 조합원들은 대체로 수집지점에서 약 1~3km 범위에 위치함.

○ 창고 활용도가 낮은 이유

- 기존 창고가 있음에도 캐슈넛을 건조·저장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은 저장 이후 판매가격 및 판로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즉, 현재 시장가격이 좋은 상황에서는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정 기간 저장했다가 향후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 따라서 AC 조합원들이 캐슈넛을 건조·저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매 또는 판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장이 필요

○ 추가 저장·건조시설 건설 가능성

- 2개 코뮌에 약 3ha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 가능.
- 해당 부지는 현재 위치보다 주요 도로에 가까운 곳으로, 현 위치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음.
- 따라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해당 부지에 창고 및 야외 건조장을 추가로 건설할 의향이 있음.
- 현재 확인한 시설의 창고 규모는 약 15m×30m, 건조장은 약

- 50m×50m이며, 신규 시설도 이와 유사한 규모를 고려할 수 있음
- 3ha 부지 내에 약 50m×50m의 건조장과 15m×30m 규모의 저장창고를 설치하는 방안이 언급됨.
 - Tom Reang AC 역시 약 6ha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 AC별 추가 지원 수요

- (Sambo AC) 향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로 △캐슈넛 가공시설 (processing factory/site), △저장창고(storage warehouse), △건조장(drying area)을 제시함.
- 특히 원물 판매뿐 아니라 반제품 또는 최종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
- (Tom Reang AC) △트럭 등 운송수단, △저장창고, △건조장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시함.

○ ODA 지원시설 및 기자재의 소유·관리 문제

- ODA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시설·기자재를 AC 등 민간 주체가 사용하는 경우, 지원자산의 법적 소유권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
 - 예를 들어 차량 등 기자재를 ODA로 지원할 경우 정부 소유 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등 민간 조합이 직접 소유·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AC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비용분담 방식(cost-sharing)도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정부 또는 AC 중 어느 주체의 소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됨.
- 이러한 자산 소유·관리 문제와 기존 R/D의 지원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 등 이동형 기자재보다는 저장시설·건조장 및 AC 사무공간 등 시설 중심의 지원을 검토하는 방향이 논의됨.
- Tom Reang AC 측은 차량 지원이 어려울 경우 조합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건조장

과 AC 사무공간을 결합한 시설 지원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됨.

○ ODA 지원 이후 판매처 선택 및 공급가격

- ODA 사업을 통해 AC에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는 농가 또는 AC가 여러 판매처(로컬 트레이더, 베트남 바이어, 가공공장 등) 중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
 - 이에 향후 ODA 사업을 통해 공장이 설치되고 AC가 해당 공장에 건조 캐슈넛을 공급할 경우,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약 40~50리엘/kg을 조정(할인)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됨.
 - 캐슈넛의 flesh content*에 따른 일반적인 시장가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
 - (grade 1) flesh content 27~30: 8,000리엘/kg이상
 - (grade 2) flesh content 25~26: 7,000리엘/kg이상
 - (grade 3) flesh content 24: 6,000리엘/kg이상
 - (grade 4) flesh content 24 미만: 6,000리엘/kg 미만
- *여기서 flesh content는 껍질을 제거한 후 kernel의 중량(밀리그램)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품질 지표로 설명됨.
- 상기 가격은 할인 적용 전 일반적인 시장가격 범위이며, 한국 측 가공공장에 공급할 경우 논의된 40~50리엘/kg의 가격 조정은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함.



(8.6) 2개 농민조합(프라삿 삼보 롱 레앙, 톰 레앙) 면담



(8.6) 2개 농민조합(프라삿 삼보 롱 레앙, 톰 레앙) 면담

5. 캄보디아 캐슈넛 협회(CAC)

□ 일시 및 장소: 2026. 8. 6.(목), 17:00 - 18:00 / CAC 사무소

□ 참석자

○ (원외)

- (CAC) SUY KOKTHEAN
- (CARD) H.E. Sok Silo
- (KRC) 안성수 소장

○ (KREI) 이윤정, 류민

□ 주요 논의 내용:

○ CAC의 주요 활동 및 이해관계자

- CAC는 캄보디아 캐슈넛 산업과 관련하여 농가,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 AC), 가공업체, 유통·수출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 현재 약 20,000개의 캐슈넛 생산농가, 캄보디아 전역의 46개 AC 및 42개의 중소규모 가공업체(SMEs) 등과 협력하고 있음.
- (농가 및 AC) 재배방식 개선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4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 또한 약 10,000명의 농가가 참여하는 Telegram 그룹을 운영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농가가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면 CAC의 기술인력이나 경험이 많은 농가가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임.
- (가공업체) 가공기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재정부 산하 SDF와 협력하고 있음.
- (바이어·트레이더)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베트남·인도·중국 등의 바이어 및 트레이더와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매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가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B2B 활동 등을 통해 캄보디아 가공업체의 중국·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CAC는 농가-AC-가공업체-유통·수출업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영리 협회로서 국제개발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음.
- 한편 FAO의 지원을 받아 Kampong Thom 지역 캐슈넛의 지리적표시(GI, Geographical Indicator)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과 농가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캐슈넛 품질관리 및 농가

- 현재까지 캄보디아산 캐슈넛에서 잔류농약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및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농약의 경우 잔류농약이 없어야 하며, 비료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액비 등을 직접 생산·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원물 캐슈넛(raw cashew nut)은 대부분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베트남 바이어가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음.
- 실제 거래에서는 바이어가 캐슈넛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을 제시하며, 품질이 좋은 캐슈넛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임.
- 농가와 수출업체 사이에는 중간상인(collector/middleman)이 존재하며, 이들이 개별 농가에서 원물을 수집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함. 이들 역시도 품질인증서(certification)를 요구하지는 않음.

○ 캄보디아 캐슈넛 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캄보디아에는 현재 약 40개 이상의 중소규모 캐슈넛 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첫째, 가공업체가 직면한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는 운전자금 (working capital) 부족임.
 - 캄보디아의 연간 캐슈넛 원물시장 규모는 약 15억~17억 달러 수준으로, 국내 가공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원물 구매 및 가공시설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둘째, 세계적인 캐슈넛 가공국인 베트남과의 경쟁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 베트남 가공업체들은 연간 약 350만 톤의 원물 캐슈넛(raw cashew nut)을 가공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양질의 원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초기 단계에 있는 캄보디아 가공업체들은 베트남 업체와의 원물 구매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연중 가동에 필요한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캐슈넛 가공 범위

- 캄보디아 가공은 대략 50%가 속껍질이 붙어 있는 캐슈넛(kernel with testa)*로 가공하여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형태이며, 나머지는 testa를 제거한 white kernel 형태로 가공하여 유럽이나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음.

*캐슈넛 가공 형태는 크게 속껍질이 붙어 있는 알맹이(kernel with testa)형태와 속껍질까지 제거한 white kernel 형태로 구분됨.

- 그러나 캄보디아 전체 캐슈넛 생산량 중 국내에서 가공되는 비율은 2-3%에 불과함.
- 캄보디아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kernel 수출량은 약 5,000톤으로, 이를 원물(raw cashew nut)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000톤이며, 전체 원물 생산량 약 100만 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가공시설 지원 시 고려할 시장 및 제품 형태

- 캄보디아의 가공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kernel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에서 포장, 브랜딩, 향 첨가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수출용 원료 또는 반가공품 생산이 목적이라면 목표시장에 따라 제품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은 크기가 큰 kernel 과 testa가 남아 있는 캐슈넛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특히 선물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고 독특한 형태의 캐슈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유럽·미국 시장은 testa가 제거된 white kernel을 선호하며, 음식 등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kernel에 대한 수요도 있음.

○ 캐슈넛 부산물 활용 가능성

- 캐슈넛 산업에서는 껍질(shell), 캐슈애플(cashew apple), 전정가지(branch) 등 다양한 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함.
- 캐슈넛 껍질에서 추출하는 CNSL(Cashew Nut Shell Liquid)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으나, 국내 가공물량 자체가 적음.
 - 현재 캄보디아의 국내 가공 비중이 전체 생산량의 약 2~3%에 불과하여 충분한 양의 shell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제약요인임.
 - 따라서 CNSL 등 부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캐슈넛 가공업체 및 가공물량 확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Cashew apple은 현재 농가에서 대부분 폐기하거나 퇴비·가축사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식초, 주스, 주류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공기술과 수거·유통체계가 부족함.
- 또한 식품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해야 하므로 수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됨.
- 캐슈나무 가지(branch) 매년 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슈나무 가지 역시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는 퇴비로 이용하거나 소각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수집하여 목재펠릿(wood pellet), 숯(charcoal) 등으로 가공할 가능성이 있음.

○ 캐슈넛 건조·저장 및 창고 관리

- 원물 캐슈넛은 적절하게 건조·보관할 경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함.
- 수분함량을 10% 미만으로 낮춘 뒤 적절한 창고*에서 보관하면 최대 약 2년간 저장 가능하다고 설명함.
-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외관상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캐슈넛 특유의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감소할 수 있음.
- 하여 베트남의 일부 가공업체는 장기간 보관된 캐슈넛을 초콜릿이나 우유맛 등으로 가공하여 맛의 변화를 보완하기도 함.

*표준화된 창고(standard warehouse)란 창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물을 적재할 때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바닥에는 팔릿(pallet) 등을 설치하여 아래쪽으로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의 상당수 창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원물을 단기간 내 가공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음.
- 특히 우기에는 원물의 수분함량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 단계부터 저장·포장까지 수분함량을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품질관리가 필요함.
- 약 10개월 정도의 저장은 품질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 베트남 업체들도 2~4월경 구입한 원물을 연말 또는 다음 해 초까지 가공하고 있음.

○ 캐슈넛 수확시기 및 기후영향

- 캄보디아 캐슈넛의 주요 수확시기는 2~5월이며, 3~4월이 수확의 절정기임. 5월은 일반적으로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일부 나무에서는 6~7월에도 열매가 생산되지만 주 수확기로 보기는 어려움. 9월 이후에는 캐슈넛을 볼 수 없음.
- 캐슈넛은 기후조건에 매우 민감하여 개화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은 이후에도 과도한 강우가 발생하면 원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지나치게 높은 기온 역시 개화와 캐슈넛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2월 말~4월에 수확되는 캐슈넛의 품질이 좋은 편이며 가

격도 높고, 5~6월 우기가 시작되면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 재배기술 개선

- 현재 기후변화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거나, CAC는 FAO와 협력하여 기상예측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음.
- 우기에는 주 단위로 강우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가 농약 살포 등 영농활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적절한 비료 사용을 통해 나무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농가에 교육하고 있음.
- 기후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화 및 수확시기를 앞당기는 재배방식도 농가에 교육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통상 2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된다면 이를 2월 초 정도로 앞당겨 3월 이후의 강우 피해를 일부 회피하는 방식임.
-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로 인해 생산량이 30~40% 감소한 사례도 있었음.
- 다만 열매를 덜 익은 상태에서 조기 수확하는 것은 아니며, 나무의 개화시기를 앞당겨 열매가 자연스럽게 일찍 성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임.

○ 농가 교육의 성과와 한계

- CAC가 제공하는 농가 교육은 매년 40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며 회당 약 100~150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 강사는 농자재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있음.
-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의 농부들과 비교하면 캄보디아 농부는 좋음. 잘 돌보고, 생산량도 높음.

○ 캄보디아 캐슈넛 농가의 생산성 수준

- 면담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평균 생산성은 약 1.5톤/ha 수준으

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약 500~600kg/ha보다 높은 수준임.

- 반면 농가의 비료·농약 사용과 수확 후 가공(건조)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CAC에서는 농가가 수확한 원물을 직접 건조한 후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함.
 - 대부분의 농가는 수확 직후 생원물을 바로 판매하고 있으며, 베트남 바이어들이 이를 구입하여 베트남에서 건조하고 있음.
- 농가가 직접 건조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판매시점을 조정할 수 있어 가격협상력도 높일 수 있음.
- 반대로 수확 직후 판매해야 하는 농가는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바이어가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농약의 과도한 예방적 살포

- 일부 농가는 병해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0~15일 간격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는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CAC에서는 병해충 발생 여부를 먼저 관찰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가공업체의 원료조달 및 운전자금 문제

- 캐슈넛은 수확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반면 가공공장은 연중 운영되어야 하므로, 가공업체가 수확기에 연간 가공에 필요한 원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캄보디아 가공업체들은 원물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 (working capital) 부족으로 수확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상당수 가공업체의 실제 가동기간은 연간 3~4개월 수준에 그치며, 가동 중단기간 동안 숙련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여 이후 신규인력을 다시 채용·교육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함.
- 반면 베트남은 원물 공급업체와 가공업체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

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료조달이 가능함.

- 베트남 트레이더들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물을 수입·확보하여 가공업체에 연중 공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 가공업체는 연간 필요물량 전체를 수확기에 한꺼번에 확보할 필요 없이 2~3개월분의 가공물량을 순차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운전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캄보디아는 해외 원물조달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원물 수입 시 세금 부담도 있어, 개별 가공업체가 국내 수확기에 연간 필요물량을 직접 구매·저장해야 하는 부담이 큼
- 또한 가공업체가 가공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창고·건조시설 구축, 원물 구매·저장 및 관리까지 직접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자금 및 운영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 캐슈넛 가치사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물을 전문적으로 구매·건조·저장하고 가공업체에 연중 공급하는 별도의 원료 공급업체(raw material supplier)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원물가격 변동 및 국제수급의 영향

- 캐슈넛 원물가격은 수확시기, 품질 및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함.
- 수확 초기에는 기상조건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도 하나, 우기가 시작되면서 품질이 저하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수확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원물 자체가 감소하면서 8~10월경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계절적 가격차를 활용하여 일부 트레이더들은 수확기에 원물을 대량 매입·저장한 후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판매하고 있음.
- 예: 해당 연도 수확기 건조 캐슈넛 가격은 약 1,600달러/톤이었으나 이후 동일 품질의 원물이 약 2,000달러/톤까지 상승함.
- 수확기와 비수확기 간 가격차는 시장상황에 따라 약 200~500달러/톤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2024년에도 수확기 약 1,400달러/톤에서 이후

1,800달러/톤 수준으로 상승한 사례가 언급됨.

- 캐슈넛 원물가격은 국내 생산 및 수확시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원물 수급상황에도 영향을 받음.
 - 올해에는 아프리카산 원물의 공급 제약으로 베트남 가공업체의 원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캄보디아산 캐슈넛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가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설명함.
 - 또한 아프리카산 원물은 베트남까지 운송하는 데 약 45일이 소요되고, 높은 습도 등으로 운송 중 품질이 저하될 위험과 장거리 운송비용이 발생함. 반면 캄보디아산 원물은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운송기간·비용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인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도 캄보디아산 원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함.

○ 가공업체의 원료 확보 및 가동률 문제

- 캄보디아 가공업체들은 원물 확보 부족으로 설비 가공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연간 가공능력이 3,000톤인 공장도 실제 가공량은 약 500~1,000톤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있음.
- 일본공장은 약 2000-2500톤 가공능력 있으나 300톤 만 거래함
- 일부 업체는 제한된 원료로 연중 가동하기 위해 거래 가능한 바이어 및 판매물량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원료 공급 부족이 가공업체 운영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운전자금 확보 및 CIP의 역할

- 원물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working capital)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연간 5,000톤 규모의 가공공장이 연간 필요물량 5,000톤을 수확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750만 달러의 운전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함.
- 수확기에 원물을 구매할 경우 비수확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더

라도 수확기에 필요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향후 Cashew Industrial Park(CIP)가 조성되고 전문 원료 공급업체가 육성될 경우, 개별 가공업체가 수확기에 연간 필요물량 전체를 직접 구매·저장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가공공장 설립·운영 과정에서 정부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방안도 활용 가능성으로 언급됨.

○ 캄보디아 국내 가공 확대 정책

- 현재 캄보디아 캐슈넛의 90% 이상이 원물 형태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가공 비중은 여전히 약 2~3% 수준임.
- 캄보디아 정부는 National Cashew Policy를 통해 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면담에서는 2027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25%를 국내에서 가공·수출 목표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민간부문 및 국제개발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
- 향후 Cashew Industrial Park(CIP)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국내 가공 확대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8.6) CAC 면담



(8.6) CAC의 농민 교육 현장

6. CARD Wrap-up Meeting

□ 일시 및 장소: 2026. 8. 7.(금), 13:00 - 15:00 / CARD 사무실

□ 참석자

○ 원외

- (CARD) H.E. Ouk Ruban, Senior Minister, H.E. Ouk Makara, H.E. Sok Silo, Chesda Chun

- (KRC) 안성수

○ (KREI) 이윤정, 류민

□ 주요 논의 내용:

○ 현지조사 주요 결과 공유

- 현지조사 결과, 대상지역의 캐슈넛 가치사슬 및 협동조합의 역량은 아직 다소 취약한 수준이나, 캐슈넛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생산 확대 의지도 높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지 농가 및 협동조합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병목요인이 확인됨.

- 대부분의 농가는 캐슈넛을 협동조합이나 농가 그룹을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중간상인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 직후 캐슈넛을 건조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고 있음. 충분한 건조 및 저장을 거쳐 가격이 높은 시점에 판매할 수 있다면 농가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협동조합의 공동 마케팅, 품질관리 및 대금지급 관련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농가 차원에서도 품질기준 충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판매 및 가격 협상력 측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대상지(1). Cashew Nut Industrial Park(CIP) 장단점

- (장점1) 향후 CIP 내 민간기업, 정부기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입주할 경우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연계, 상호학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장점2) 세제혜택 및 주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도 기대가능
- (위험요인1) 기초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
 - 현장 방문 결과 전기, 용수, 배수시설,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인프라 구축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 일정 및 예산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존재함.
- (위험요인 2) 토지이용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 종료 이후 토지사용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위험요인 3) CIP 입주기준과 관련된 문제 존재.
 - CIP 입주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가공능력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입주기준 변경 또는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캄보디아 정부 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2). MAFF 제공 부지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1) 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함.
- (장점2) 전기 및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 조기에 갖춰질 수 있음.
- (장점3) MAFF가 제공하는 부지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기대 가능
- (장점4) 사업 종료 이후 시설의 이양(hand-over), 관계기관 간 조정(coordination), 시설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 다만, 한국 측의 사업 추진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KRC를 통해 PMC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기존 MAFF 제공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인식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KRC 및 MAFRA 모두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PMC 선정절차 및 향후 일정

- 한국 측 진행 현황 및 사업부지 선정 입장
 - PMC 입찰 및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9월 중순경 PMC 선정, 9월 말 계약 체결, 10월 초 사업 착수가 예상됨.
 -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건을 새롭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음.
 - 한국 측에서는 이미 사업대상지, 예산,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보고한 상황이며, MAFRA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업대상지를 CIP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MAFF 제공 부지를 유지하는 것임.
 - 특히 CIP의 인프라 구축 일정이 불확실하므로 CIP로 이전할 경우 사업 전체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 CARD 측 입장 및 주요 향후 일정
 - CARD 측은 기존 MAFF 제공 부지와 비교하여 현재 CIP 부지는 인프라 및 관련 여건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
 - 이에 한국 측이 제시한 입장과 근거를 캄보디아 정부에 보고하고, 기존 MAFF 제공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함.
 - 다만 현장에서 즉시 최종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으며,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 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 향후 시설 운영·관리 주체 관련 논의

- 사업기간 중 및 사업 종료 후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 당초 사업은 캐슈넛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주요 수혜자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가공시설의 성공적인 운영과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설 가동에 필요한 충분한 원물(raw materials)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 및 농가 면담 결과, 농가들이 생산한 캐슈넛을 해당 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는 시설에 원물을 공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중간상인에게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 대금지급 조건 및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농가의 사업 참여 의향 및 향후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의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기초선조사 및 농가 참여의향 조사 계획

- 향후 기초선조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범주의 정보를 조사 예정
- (1) 농가 및 협동조합의 기본 여건
농가소득 및 연령, 가구원 수, 교육수준, 캐슈넛 재배경험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캄보디아 캐슈넛 생산량, 농업 관행 등
- (2) 사업 참여 및 거래 의향
농가가 생산한 원물을 향후 사업시설에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시설 운영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임.
- 단순히 참여 여부를 ‘예/아니오’ 방식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농가의 의향을 파악할 예정임.

- 예를 들어 프리미엄 가격(premium price)이 어느 정도 제공되는 경우 시설에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선지급금(advance payment) 및 최종 대금지급(final payment)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 최종 대금지급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여 농가의 의향을 조사할 계획임.
- 조사 결과는 PMC 측과 공유하고, PMC 선정 이후 추가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및 운영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CARD 측은 사업 종료 후 정부로 시설이 이양될 경우의 운영방식은 캄보디아 정부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언급
- 특히 MAFF가 현재 현대적 농업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를 협동조합으로 조직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상황이나 적절한 운영주체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 판단할 필요 존재

○ 수혜·비수혜 농가 조사대상 선정 및 협조 요청

- 사업효과를 향후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혜농가뿐 아니라 비수혜농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전체 조사대상은 약 300농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수혜농가 150가구와 비수혜농가 150가구를 조사하여 향후 사업성과를 비교할 계획
- 이에 따라 CARD 측에 수혜대상 협동조합 농가와 동일·유사 지역의 비수혜농가 명단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함.
- 수혜지역의 경우 이번 현지조사에서 방문한 3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의 가능하나, 비수혜지역의 경우 아직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련 농가를 확인하여 협조하겠다고 CARD측은 설명함.
- 특히, 비수혜농가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산발적

으로 분포되어 있어 조사대상 농가를 한 곳에 모으거나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 약속

○ 회의 결과 및 합의사항 문서화

- 이번 현지조사 및 Wrap-up Meeting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향후 총리 보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존재
- 따라서 한국 측과 CARD 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고, 안성수 KRC 캄보디아 사무소장과 CARD 측 관계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방안을 제안

○ 시설 운영·관리 방식 관련 3가지 대안

- 시설 운영·관리 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대안 존재
- ① 농업협동조합(AC) 운영
 - 농업협동조합이 시설 운영의 주체가 되고, 협동조합이 선임한 전문경영인(CEO)이 원물 수집, 품질관리, 시설 운영, 판매 및 농가 대금 지급 등을 총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농가들이 계약재배 및 공동판매 등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고 수확한 원물을 중간상인에게 즉시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원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영역량, 농가의 공동판매 참여의지, 대금 지급방식, 전문경영인 확보 및 판로 연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② 농업협동조합(AC)과 민간기업 공동 운영
 - 민간기업은 가공·시설 운영 관련 전문성, 운영자금 및 구매처 연계 등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은 참여농가 조직화 및 원물 공급을 담당하는 공동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가공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원물을 구매하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원물 확보 등에 필요한 자본이 약 USD 7.5 million 수준으로 추정되어 사업비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의 역할분담, 원물 공급 및 가격 결정, 농가 대금 지급조건,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함.
- ③ 정부가 운영하고 민간기업·협동조합 등이 시설 이용
 -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농업협동조합이나 민간기업 등이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가공·저장시설을 이용한 후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정부기관의 시설 운영 권한 및 역량, 운영인력 확보, 시설 유지관리, 이용료 산정 및 이용기준, 운영비 회수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세 가지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을 필요 존재
- 운영방식은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해야 하며, CARD 측은 가능하다면 MAFF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육성 정책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운영모델을 검토 시 민간부문 참여를 포함한 여러 운영모델을 검토할 수 있으나, “농촌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운영방식 결정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
- 아울러 사업대상지 및 향후 시설 관리·운영방식 등 기존 합의문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추가적인 의견과 제안을 요청함.



(8.7) CARD Wrap up 미팅



(8.7) CARD Wrap up 미팅